

[기획] >> 5면

코로나19 재확산 속 위태로운 학습권

[학술] >> 7면

NFT 플랫폼, 미래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다

[사회] >> 9면

촉법소년 논쟁 재점화

[인물] >> 12면

김성규 경인일보 편집국장을 만나다

첫걸음 멘 박정운 총장, 우리학교의 청사진을 함께 보다

지난해 12월 20일 박정운 우리학교 제12대 총장(이하 박 총장)이 선출됐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총장은 우리학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한편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 총장이 그리는 우리학교 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4면에서 계속

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실
글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페르시아어 · 이란학과, 제12회 이란문화제 개최해

지난 21일 우리학교 페르시아어 · 이란학과는 이란의 새해 축제인 ‘노루즈(Nowruz)’를 맞아 주한 이란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2회 이란문화제’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특수교육인 홍원과 한국이란협회가 후원한 이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노루즈 상차림을 비롯한 이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페르시아어 · 이란학과 선배가 후배에게 노루즈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유달승 페르시아어 · 이란학과 학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와 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이번 해의 첫 행사로 이란문화제가 개최돼 그 의미가 크다”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드 바담치 사베스타리(Saeed Badamchi Shabestari) 주한 이란 대사는 행사의 축하 영상을 통해 “노루즈는 개인과 민족의 구분없이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며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는 국제 상황 속에서 노루즈의 의미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추다연(일반 · 중동언문 21)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몇 학기 동안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행사가 일부 대면으로 진행돼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개최될 이란문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나라와 이란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해에 좋은 행사가 기획돼 뿌듯하다”며 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민서(아시아 · 이란어 20) 씨는 “채널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이란문화를 학교에서 동기와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전했다.

한편 ‘노루즈’는 페르시아의 새해 축제로서 페르시아어로 새롭단 의미인 ‘노(Now)’와 날을 뜻하는 ‘루즈(ruz)’가 합쳐진 단어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노루즈는 2009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2020년 유엔(UN) 총회에서 3월 21일을 ‘세계 노루즈의 날’로 선포했다. 그 이후 현재 이란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페르시아 문화권 국가에서 3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노루즈를 기념하고 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플래니어 (PLANEAR)와 업무 협약 체결해

지난 17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와 디지털 콘텐츠 플래닝 그룹 플래니어(PLANEAR)의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우리학교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인턴십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 있는 융 · 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우리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 외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관련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돼 학업과 실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우리학교와 플래니어 측은 △대학생 대상 해외 진출 관련 사업 발굴 △소셜 계약직과 인턴십 인력 지원 및 지원 인력 교육 △정부과제 등의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 수행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력은 해외 콘

텐츠와 문화에 통찰력이 있는 우리학교 학생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에 참여해 콘텐츠 산업 분야의 용역 수출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원하 플래니어 대표는 “해외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이번 협약은 큰 힘이 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토대로 사내 자원과 기획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과 공유해 전문 인재 육성에 힘을 싣겠다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세훈 글캠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장은 “우리학교는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외 콘텐츠와 마케팅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 3. 23(수) 09:00 ~ 4. 1(금) 17:00	2022. 5. 9(월) 09:00 ~ 5. 18(수) 17:00
면접장소 발표	2022. 4. 28(목) 14:00 예정	2022. 6. 9(목) 14:00 예정
면접전형	2022. 4. 30(토) 10:00부터	2022. 6. 11(토) 10:00부터
합격자 발표	2022. 5. 13(금) 14:00 예정	2022. 6. 24(금) 14:00 예정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석사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석사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2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자격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우편제출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시 유고결석 인정돼

지난 11일부터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대상자△백신접종자△신속항원검사자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유고결석을 인정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등 격리대상자의 유고결석은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에 따라 7일로 인정된다. 백신접종자의 유고결석은 접종일을 포함해 최대 2일간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자의 경우 음성인 경우 1일, 양성인 경우 2일간 유고결석이 인정된다. 유고결석 대상자는 공식적인 △격리 통지문△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서△백신접종 확인서를 받은 후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해당 방침은 11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효하다. 황우정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차장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면 수업 진행을 위해 유고결석제도를 시행 중이다”며 “이번 달 11일부터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안내문을 게시했고 교수진에게 이와 관련된 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의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확진자 비율이 5% 내외일 경우 자율적인 대면·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수강 정원이 4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유고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자	7일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SNS통지)	격리대상자는 보건당국의 격리통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신속항원 검사	(양성) 최대 2일 (음성) 최대 1일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통지문 (문자, SNS통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서	PCR검사 결과 좋지 하루 전 또는 당일 수업에 대해 한함 당일 수업에 한함 (단, 개인이 실시한 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에 불만함)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백신 접종 확인서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유고결석 가능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7일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SNS통지)	

※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통지)된 서류 또는 문자메세지에 한하여 인정함
(단,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빙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코로나19 확진 관련 유고결석 안내

우리학교의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제에 대해 조형인(아시아·마인어 21)씨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당일 유고결석이 인정돼 병원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었는데 출석에 관한 걱정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신수연(인문·언어인지 19)씨는 “코로나19가 확진된 학생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며 감염 전파에 대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럽단 반응을 보였다.

한편 14일부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는 교내 모든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는 대면 수업이 확대돼 건물 이용이 잦아진 학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서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주요 관련 사항’에 따르면 항시적 관리가 어려운 동아리실 및 과방은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점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달부터 △국제학사△글로벌홀△흡스돔은 기숙사 입사자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기숙사 내 재택치료를 금지하고 자택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최소 7일 이상의 격리를 원칙으로 한단 공지를 각 기숙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입사자에게 개별 문자 및 메일과 게시판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처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우리학교 진로취업센터, 1학기 릴레이 취업특강 개최해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센터에서 ‘1학기 릴레이 취업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1학기 릴레이 취업 특강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특강은 주말을 제외하고 8일에 걸쳐 2시간씩 구성됐다.

이번 릴레이 특강은 학생이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강은 △산업 전망과 기업 분석△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인문·경상계생을 위한 직무 설정과 취업전략△이공계생을 위한 직무 설정과 취업전략△공기업 NCS 필기전형△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해와 진로 준비△금융권 취업△글로벌·외국계 취업을 위한 정보탐색 순서로 8가지 주제를 다뤘다. 변민선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센터과장(이하 박 과장)은 “릴레이 취업 특강은 2014년부터 우리학교 학생의 맞춤형 진로 서비스



▲2022학년도 1학기 릴레이 취업특강 포스터

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상반기엔 해외의 산업 전망과 기업분석을 비롯해 인문·상경계열 및 이공계 등 전공계열별 직무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취업전략을 제시했다”며 학생 스스로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점을 전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강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니 신청을 하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 과장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진로 프로그램인 만큼 적극적으로 강의에 입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회차 특강인 산업 전망과 기업 분석을 들은 우승훈(상경·국통 21)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시장에

생긴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강을 통해 업종별 취업 시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좋았단 입장을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채용 전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특강의 유익함을 강조했다. 인문·경상계생을 위한 직무 설정과 취업전략 이란 주제를 다룬 3회차 특강을 들은 이서윤(경상·GBT 21)씨는 “진로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지만 인문·경상계열의 주요 직무 영역과 진출 분야를 확인해 진로를 계획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문미선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우리학교에 장학금 기탁해

지난 11일 우리학교 총장실에서 문미선 서울여자대학교(이하 서울여대) 명예교수(사범·독교 72)(이하 문 교수)와 우리학교의 이름을 딴 ‘문외장학금’ 기탁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수 인원만 참여했다. 장학금 기탁식엔 △가정준 대외협력처장△김종윤 독일어교육과 동문회장△문 교수△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백영현 독일어교육과 동문회 고문△조국현 독일어과 교수가 참석했다. 문 교수는 우리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학교 후배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많은 동문이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문 교수는 이번 장학금 기탁식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학교 동문들이 1,000만 원씩 기탁해 총 1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박 총장은 “학교 발전에 있어 동문의 도움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의미 있는 장학금

을 기부해준 문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단 입장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종윤 독일어교육과 동문회장은 문 교수의 장학금 기탁을 계기로 많은 독일어교육과 동문이 모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람을 전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독일어교육과 학우 및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난아(사범·독교 21)씨는 “우리학교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뜻깊은 장학금을 기탁하신 문 교수께 감사하다”며 같은 과 선배에게 큰 도움을 받은 만큼 배울 수 있는 우리학교의 일원이 되겠다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 교수는 우리학교 독일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한 국독어학회 및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돼

지난 21일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이하 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식출판콘텐츠원은 1년간 약 96억 원을 지원받아 우리학교 데이터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외국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운성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은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선 언어공학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의 수주는 우리학교의 언어 공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업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다국어 음성 데이터 교육과 자연어 분석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외국어 발화 평가 표준체계 수립△음성 인식 및 통·번역 모델 설계△자동 문법교정 시스템 확장 등을 실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지식출판콘텐츠원과 데이터센터에서 보관돼 추후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어 교육용 인공지능 모델 및 외국어 음성 인식기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을 맡은 한승희 우리학교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은 “기계번역 및 외국어 음성인식에 대한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우리학교 학생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계획이다”며 데이터 사언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실무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장도은(아시아·마인어 21)씨는 “언어 공학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현재 ‘Language&AI’ 트랙을 융합 전공으로 공부 중이다”며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과 데이터센터가 협업해 총 약 3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년간 인공지능·자연어 기술 전문 기업 ‘솔트룩스(Saltlux)’와 협업해 △다국어 구어체 번역·말뭉치 구축△한국어·영어·중국어 음성데이터 구축△인공지능 통번역기 개발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두 개의 대화면을
하나처럼 자유롭게
LG gram



그램+view는 별매입니다

학생 간 전공어 학습격차, 공정한 언어 학습 환경을 위해선

지난해 대학알리미 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신입생 중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및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 졸업생 출신 비율은 국내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입학 전 전공 언어(이하 전공어)를 배운 학생과 일반 학생 간

의 성적평가가 불공정하단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실제 우리학교 양캠퍼스에 있는 총 45개의 언어학과 중 14개 학과만이 수준별 분반 강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학교 전공어 수준별 분반 강의의 현황△우리학교 학생들의 수준별 분반 강의에 대한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전공어 수준별 분반 강의 현황

우리학교 △외국어 특기자△외고 및 국제고 졸업자△해외 유학 경험자 등과 일반 학생 간 전공어 구사 능력 차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에타엔 입학 전 전공어를 배운 학생과 일반 학생과의 성적평가가 불공정하단 의견이 지속적으로 전해졌다. 염승민(일본·일언문 18) 씨는 “입학 전 이미 전공어에 능숙한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성적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며 “이는 수준별 분반 강의의 개선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외대학보가 이번 달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외국어 전공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어 과목의 성적 평가에 불공정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53.1%의 학생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학알리미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학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비율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75%)△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영재고등학교(12.5%)△외고 및 국제고(12.3%)△과학고등학교(0.1%)△예술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0.1%)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고 및 국제고 비율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았다.

우리학교 양캠퍼스 45개의 외국어 학과 중 수준별 분반 강의를 개설한 학과는 14개뿐이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노어과△독일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아랍어과△인도어과△중국어언어문화학부△중국어교통상학부△포르투갈어과△EICC학과△EILIT학과가 수준별 분반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러시아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영어통번역학과△일본어통번역학과가 운영 중이다. 수준별 분반 강의를 운영하는 학과에선 △전공어를 처음 접한 학생 전용 강좌 개설△일부 강의에 해외 체류 경험자 및 외고 졸업자의 수강 제한△입학 전 학과 자체 전공어 시험 등의 방식으로 반을 분류한다. △마인어과△아랍어과△중국어교통상학부는 전공어를 처음 접한 학생을 위한 전용 강좌를 개설한다. △노어과△러시아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중국어언어문화학부△포르투갈어과는 해외 체류 경험자 및 외고 졸업자 대상의 강의를 따로 운영하는 중이다. 일본어통번역학과와 EILIT학과의 경우 입학 전 학과 자체 전공어 시험을 통해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수준별 분반 강의에 대한 입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외국어 전공생은 성적 평가가 불공정한 가장 큰 이유로 ‘전공어 수업 내 이미 전공어를 숙달한 학생이 많아서

(70.6%)’를 꼽았다. 이어 ‘구체적인 성적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17.6%)’와 ‘학과 교육과정이 입학 전 전공어를 미리 습득한 학생에게 지나치게 유리해서(11.8%)’가 잇따랐다. 또한 ‘전공어 수업에 수준별 분반 강의가 개설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75%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전 씨(국제지역·프랑스 20)는 “프랑스학과엔 학년에 따라 문법과 회화 수업의 난이도를 구별한다”며 “공정한 성적 평가를 위해 수준별 분반 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학생 이 씨(통번역·독일어 20) 또한 “독일어통번역학과와 경우 신입생 절반 이상이 외고 졸업자이다”며 “3년 동안 전공어를 미리 학습한 학생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전했다.

한편 학과 내·외의 사정으로 인해 수준별 분반 강의의 개설을 원해도 실행하지 못하는 학과들이 존재한다. 특수외국어학과의 경우 수강 인원이 적고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해당 언어를 배운 학생이 없어 수준별 분반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몽골어과△폴란드어과 등 특수외국어학과는 신입생이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수준별 분반 강의를 시행할 경우 수강인원이 보장되지 않아 폐강될 우려가 존재한다. △스칸디나비아어과△몽골어과△페르시아어·이란학과 또한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전공어를 배울 기회가 없으며 해외 거주 및 어학연수 이력이 있는 학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수준별 분반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단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몇몇 학과에선 전공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전공어 관련 외국인의 일부 수업 제한 및 개별 성적 산출△학과 학회 스터디△방중 전공어 교육△하계 방학 단기 연수△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을 통한 프로그램△입학 전 전공어 학습 강의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어 학습 방법을 보장하지만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줄 순 없단 의견이 존재한다. 일본언어문화학부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어를 배우는 ‘망가데’와 J-POP을 이용해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소라’ 등 다양한 학회가 있다. 염 씨는 “이런 학회 활동은 일본어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갖춘 동기들과의 일본어 실력 격차를 줄이긴 어렵다”며 공정한 성적 평가의 근본적 해결책은 수준별 분반 강의란 생각을 전했다. 태국어통번역학과와 경우 스터디 학회를 통해 선후배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궤도원(통번역·태국어 22) 씨는 “태국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여전히 동기들과의 전공어 실력 격차를 느끼고 있다”며 “학과 내 다양한 활동은 도움이 되지만 부담 없는 수업환경을 위해선 수준별 분반 강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바른 전공어 학습 환경을 위해 바라는 점’에 관해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구체적인 성적 평가 기준 공개’를 꼽았다. 이외에도 △입학 전 전공어 시험을 통한 수준별 분반 배정△전공어에 대한 정규 학과 수업 외 보충수업△입학 전 신입생 대상 전공어 기초 강의 제공 순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도 ‘절대평가 시행’과 ‘교수와의 1:1면담을 통한 학습계획 설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 이에 황우정 우리학교 학생종합지원센터 차장은 “우리학교는 학생에게 구체적인 성적 평가 기준을 100% 공개하고 있다”며 “언어 학습 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생들의 전공어 실력 격차에 관한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외국어 학과 수업 한정 상대평가 의무화 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달 학사제도 협의회에서 성적평가방식 절대평가 전환 및 상대평가 완화에 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앞으로 열릴 총장과의 대화에서 성적평가 방식과 관련한 요구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글캠 총학 또한 “특정 언어에 대한 경험이 특히 회화 수업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며 “전공어 수준별 분반 강의는 공정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의 경우 입학 전 처음 전공어를 접한 신입생을 위해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숙명여대에선 △독일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 전공생에 한해 문법과 회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총 30시간의 신입생외국어집중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입학 후 신입생은 자체 전공어 시험을 치른 뒤 실력에 따라 수준별 분반 강의에 참여한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2022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 ~ 02.23	03.20	04.08	04.22
2회	04.28 ~ 05.04	05.29	06.17	07.01
3회	08.04 ~ 08.10	09.04	09.23	10.07
4회	10.06 ~ 10.12	11.06	11.25	12.09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초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첫걸음 뎌 박정운 총장, 우리학교 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함께 보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박정운 우리학교 제12대 총장(이하 박 총장)이 선출됐다. 박 총장은 우리학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한편 학사 제도(이하 학제) 개편을 통해 우리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권리 회복△재정 회복 방안△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박 총장이 그리는 우리학교 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Q1. 우리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교의 총장이 된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과 학교 발전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2. 이번 총장 후보자 선거는 우리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모두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최초로 △교수△직원△학생 모두가 총장 후보자 선거에 참여했던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3주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학교 발전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Q3. 앞으로 총장으로서 우리학교를 운영할 때 기준이 될 가치는 무엇인가요?

학생이 꿈을 꾸고 발전해 성공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으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입니다. 우리학교의 구조와 학제를 혁신해 우리학교 학생이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로 거듭나도록 만들겠습니다.

Q4.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반적인 학습 권리는 물론, △교환학생△7+1 파견학생 프로그램△해외인턴십 등 우리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위와 같은 학습권 및 혜택을 어떻게 되살리실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강의의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온라인 송출 방식(미러링 방식)으로 진행된 강의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학교 정보지원처장에게 웹엑스(Webex)로 진행한 수업 내용을 이클래스(e-class)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지친 상태를 고려해 강의의 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다시 국가 간 교류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간 보류됐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전면 재개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 극복 후를 염두에 뒀 ‘글로벌 전문가 플랫폼’이란 새로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대학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우리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해외의 대학원으로 진학하기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을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고 우리학교를 세계 최고의 국제교육 허브대학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Q5.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총장 취임식에서 양 캠퍼스 간 유사중복학과에 대한 조정 계획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는 2014년 진행된 본·분교 통합을 통해 하나의 대학 아래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이원화된 캠퍼스로 구축 및 운영돼왔습니다. 그러나 유사중복학과로 인해 우리학교가 여전히 본·분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학과를 조정해 각 캠퍼스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하나의 외대’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어문·사회과학 중심의 다국어 데이터 기반 외국학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문화△생명공학△정보통신 기술 기반 실용학문 융합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송도캠퍼스는 데이터 기반 첨단과학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캠퍼스별 특화발전은 우리학교의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학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더는 유사중복학과 통합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과에 속한 교수 및 학생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학교발전이란 대의명분 아래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Q6. 우리학교에 AI융합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발전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과대학별△전공별△학과별 융합을 통해 EIT△학과와 같은 예뿐만 아니라 자연 언어와 빅데이터 공학을 결합한 교육 모델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도 확대 적용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언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경영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결합한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현 AI융합전공의 개념을 강화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단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Q7. 유사중복학과 조정과 AI융합대학 및 대학원 설립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조정 대상 학과 학생들의 의견과 요청을 어떻게 수렴하실지 궁금합니다.

유사중복학과 조정과 융복합 혁신교육과정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특히 조정 대상 학과 학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생각입니다. 이런 소통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Q8. 코로나19 사태와 등록금 동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의 재정 상황이 취약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도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꿈으로 끝나기에 십상입니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등록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실질적인 등록금 하락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따라서 등록금 수입 외에 △발전기금 유치△산·관학협력△수익사업△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총장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고 총장으로서 기금 마련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학교 △대외협력처장△영어대학장△총동문회 사무총장△해외동문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를 활용해 기금 유치를 성사시키려 합니다. 또한 기금 마련 대상을 △기업인△독자가△학부형 등 기존보다 넓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관학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책사업지원팀을 만들어 국책사업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산학연계부총장의 역할을 확대해 글캠 주변 지자체와의 관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lobal 1+3’ 등의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HUIFS 1+3’, ‘Dual Degree’ 등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Foundation course *등을 운영해 우리학교를 외국인 유학생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Q9. 과거 상대·절대 평가 적용과 대면·비대면 강의 방식 선정 당시 학칙 변경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 사회에선 불통 행정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총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설캠과 글캠 총학생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임기 동안 학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장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외대학보 독자와 학내 구성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대학보는 학내의 다양한 소식과 의견을 전하며 학교 구성원의 눈과 귀가 돼왔습니다. 창간 67주년을 맞이한 외대학보가 지금까지처럼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우리학교 발전을 위한 기사를 내고 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내 구성원의 여론에 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Foundation course: 해외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대학예비과정

코로나19 재확산 속 모두의 학습권을 위한 방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돼 지난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62만 1,328명을 기록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대면수업△비대면수업△실시간 온라인 동시 송출 방식(이하 미러링 강의) 등이 모두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격리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단 목소리가 존재한다. △우리학교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방식△우리학교 대응 방식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방식

이번 달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 8,392명이다. 이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의 확진자 수인 2만 1,770명보다 76.4% 급증한 수치다. 앞서 지난달 7일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과는 이번 해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과 오미크론 현황 및 대응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면수업을 적극 확대하되 비대면수업 시에도 양질의 수업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단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회·정서적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 공동체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비교과 활동의 대면 추진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를 비롯해 △경희대학교△서강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은 대면수업 기조 아래 수강 정원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대면으로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했고 성균관 대학교는 지난 23일 대면으로 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우리학교 대학일상회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21일까지 우리학교 학생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90명이다. 지난해 12월 13일에 발표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인 59명에 비해 약 9배 증가했다. 우리학교는 1월 13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방식 안내’에 따라 이번 학기 40인 이하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40명 초과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다만 대면수업 수강 학생 중 △입국이 불가능한 해외체류자△자가격리자△증상 의심자 등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이 있는 경우엔 미러링 강의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불참할 경우 7일간 유고결석을 인정한다.

한편 우리학교의 현행 학부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신아(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코로나19 확진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수업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현익(공과·컴전 17) 씨는 “지난해에 미러링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번 해 같은 수업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우리학교 대응 방식의 문제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의 수업 대체 학습 방안은 교수의 재량에 맡겨져 수업마다 다르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학습권이 침해된단 지적도 존재한다. 외대학보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6.7%의 학생이 ‘현재 우리학교의 코로나19 관련 격리 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LLIT학과△스페인어통번역학과△응합일본지역학부 등을 포함한 많은 학과는 교수의 재량에 맡겨 수업 대체 학습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LLIT학과 조교 A 씨는 “수업은 교수의 재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 대체 학습방안에 대한 학과 차원의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과목별로 상이한 수업 대체 학습방안으로 인해 결석 시 아예 학습할 수 없는 수업도 존재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단 지적도 있었다.

‘수강 중인 대면강좌에서 미러링 방식을 사용하나’란 질문에 92%의 학생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 미러링 수업은 수업 결손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미러링 수업을 경험했던 김가예(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미러링 수업에서 교수님의 판서가 잘 보이지 않고 잦은 기계적 결합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새로운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면 수업 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강 중인 대면강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 공지 및 개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란 질문에 72%의 학생은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수학과△중국어교통상학부를 비롯한 다수의 학과에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과의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공지하진 않는단 사실을 전했다. 중국외교통상학부 조교 B 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에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공지는 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면 강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업 참여 인원에게 한해 교수가 이클래스(e-clas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와 폴란드어과 등 특수외국어학과는 모든 전공 수업 수강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유지돼 대면 수업이 실시된다. 이에 폴란드어과 재학생 C 씨는 “모든 전공수업이 같은 강의실에서 이뤄진다”며 “확진자와 같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접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등교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은 ‘강의 녹화본 제공’을 선택했고 이어 ‘강의 내용 정리 파일 제공’이 뒤따랐다. 정나윤(사회과학·미컴 19) 씨는 “증상이 의심돼 결석하고 싶어도 수업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 고민이 됐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녹화본이나 강의 내용 정리 파일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우리학교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고 녹음본 혹은 녹화본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이는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은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로 쪽지시험과 발표 같은 성적에 반영되는 평가요소에서 피해를 받고 있단 사례가 접수됐다”며 “당연하게 제공받아야 할 녹화본과 녹음본이 지도 교수의 재량에 맡겨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설캠 총학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학사제도협의회 후속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앞으로 △교무처 학의 방문△서명운동△학내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캠 총학 또한 비정기학사제도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논의할 수 있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설캠 총학은 “우리학교로부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인원 중 30%를 재학생으로 채워 빠른 시일 내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캠 총학은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정례화와 비대면 수업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따로 마련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학과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루마니아어과 조교 E 씨는 “대면수업에서 확진자가 과반수 이상 발생하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업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 F 씨 또한 “대면수업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대학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로 인해 대면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이 한 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업을 미러링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강의 녹화 자료를 제공한단 방침을 밝혔다. 건국대학교 또한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공결 발생 시 공결 허용 후 영상강의와 강의자료 등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 모두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명연 기자 04jim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 4. 25(월) ~ 4. 29(금)	2022. 5. 30(월) ~ 6. 3(금)
면접전형	2022. 5. 14(토) 10:00	2022. 6. 18(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 5. 27(금) 16:00 예정	2022. 7. 1(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 5. 30(월) ~ 6. 3(금) 예정	2022. 7. 4(월) ~ 8(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컴퓨터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 어원어법교육 • 독서논술교육 • 인공지능융합교육 •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합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관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입구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4.25(월) ~ 05.06(금)	2022.05.30(월) ~ 06.10(금)
고사장 발표	05.12(목) 15:00	06.16(목) 15:00
면접전형	05.14(토) 10:00 예정	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6(목) 15:00	06.30(목) 15: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어를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서통지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료 초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포르투갈에 서서히 물들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 해 1월까지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포르투갈 코임브라대학교(Universidade de Coimbra)에서 공부했다. 난 교환학생 제도와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중에서 고민했지만 포르투갈어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 전공언어 학습에 더 초점이 맞춰진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포르투갈로의 출국이 급히 결정된 탓에 숙소를 구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학교 근처 숙소는 예약이 다 찬 상태였기에 △아고다(Agoda)△에어비엔비(Airbnb)△이데알리스타(Idealista)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남은 숙소 중 하나를 선택했다. 숙소는 대기 인원으로 인해 한 달 이상 묵을 수 없었고 코임브라 내에서만 세 번의 이사를 하게 됐다.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임브라 내의 △상냥한 현지인△아름다운 풍경△온화한 날씨를 포르투갈에서의 삶을 견디게 해줬다.

유럽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기 초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코임브라대학교 어학당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들으며 포르투갈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현지인과 어울려 수업을 듣고 생활하며 포르투갈어 실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느꼈다. △마트△병원△식당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해 다양한 어휘를 익혔고 이 과정을 통해 전공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수업 외의 자유시간엔 리스본(Lisboa)과 포르투(Porto) 등 아름다운 도시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항상 여



유를 지닌 포르투갈 사람의 태도였다.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포르투갈 사람의 모습이 때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성격은 업무 처리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휴일엔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 곤란했던 경험도 있다. 그럼에도 모든 포르투갈 사람이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줬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국가를 여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에 포르투갈 내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한 것에 만족한다. 또한 한 국가에 오래 머물며 외국인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맛집과 명소도 다녔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편리한 유학 생활을 위해선 국제학생증(ISIC)을 발급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항공권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유럽 내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유레일 패스(Eurail Pass)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포르투갈의 식자재는 저렴한 편이므로 직접 요리해 먹는다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영향을 줬다. 포르투갈에서의 생활은 소중한 경험이자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유빈(서양어 · 포르투갈어 19)

케냐

<울지 마, 아이야>

-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동족상잔의 비극 -



우리나라와 케냐는 공통 정보단 △대륙△문화△인종 등과 같은 차이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케냐의 문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그건 20세기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케냐는 1884년 베를린 회담 이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다. 독립운동과 영국인의 탄압이 반복되다 1963년 12월 12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터 독립했다.

케냐 출신 작가 '응구기 와 티옹오'는 케냐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영국의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로 유학을 갔다. 당시 로선 엘리트층이라 볼 수 있는 위치였지만 자국의 독립 이후 기존의 제국주의 세력과 더불어 이에 가담한 흑인 기득권층에 반발심을 느꼈다. 그리고 이들을 비판하는 작품을 쓰며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쓰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1964년 집필된 책 '울지 마, 아이야'다.

소설은 1945년 무렵 '은조로게'란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 가도 된단 허락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은조로게는 교육과정을 무시해 수료해 흑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 목표는 이야기가 진행되며 산산이 무너진다. 흑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시위에서 은조로게의 아버지 '응고토'가 백인 지주 '하울랜드' 밑에서 일하는 흑인 '자코보'를 해고지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에 응고토는 실업자가 되고 은조로게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다. 이 시위는 백인과 아들 밑에서 일하는 흑인에 대한 무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코보는 은조로게의 형에게 살해당한다. 이에 분노한 하울랜드가 응고토를 처형한다. 가세가 기울 상황에서 당장 수입을 얻어야 했던 은조로게는 인도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일을 해보지만 고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고당한다. 은조로게의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끝으로 소설이 막을 내린다.

이런 비극적인 내용과 결말은 당시 케냐 국민의 절망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목이다. 작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지배층이었던 백인보다도 백인 지배층에 가담한 흑인들이었다. 흑인 기득권층은 백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동포인 흑인들을 탄압했다. 피부색이 같은 이들이 피부색이 완전히 다른 이들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배가됐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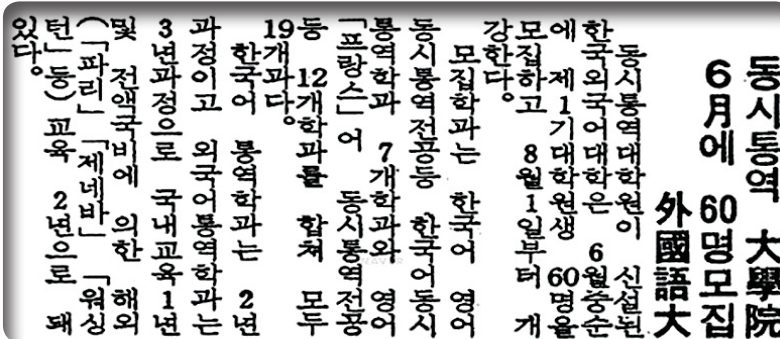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린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이 지배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었던 데엔 일본에 가담해 이득을 취한 친일파 덕이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케냐처럼 독립 이후 친일파의 과오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이처럼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는 대부분 비슷한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 울지 마, 아이야를 읽으며 식민 지배를 당했던 케냐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The Unique & The Best'

③ HUFs makes me special : 疏通의 通翻譯



▲통번역대학원 신설 언론 기사(1979.5.29)



▲통번역대학원의 세계통번역대학원협회 정회원 가입 기념식(2004.6.11.)



▲통번역대학원 개원 및 입학식(1979.9.1.)

우리나라 최고의 통번역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 통번역대학원은 1979년 7월 개원한 아시아 최초의 통번역 전문 대학원이다.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활약할 전문 통역사와 다국적 △문화△정보△지식 교류를 담당할 번역사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통번역대학원은 다른 교육



▲통번역대학원 국제학술대회(2005.5.13)

기관과 달리 이론과 실기 훈련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수업 환경에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동시통역 교실△동시통역 설비를 갖춘 국제회의장△멀티미디어 강의실 등 완벽한 교육 시설을 갖춰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 중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선 △국제회

의 통역학△문화△번역 순차 통역학△번역학△통번역학△통역학 전공의 석박사 4,000여 명이 배출됐다. 배출된 전문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엔 이런 교육 활동과 공헌을 인정받아 세계 유수의 통번역 교육기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세계통번역대학원협회'에 아시아 최초로 회원이 돼 우리 학교의 통번역 교육 위상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세계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의 통번역 교육 체계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웃는재단과 통번역대학원이 협업해 진행한 발달장애 정보 번역 사업은 영미권의 유용한 기사 및 영상의 번역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더불어 △교육△자

립△재활△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관련 단체에 제공 중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통번역이 나아가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학문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로 유명세를 떨친 사촌 최는 지난 해 우리 학교 초청특강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의사소통 행위는 결국 번역이자 통역이다"고 전했다. 통역이란 단순히 언어의 변환이 아닌 문화와 감정의 소통이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것이다. 이는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번역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소통△언어의 다원화다. 우리 학교 통번역대학원은 언어들 사이에 우열은 존재할 수 없단 언어학적 원칙을 지지하며 변화하는 세계에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새롭게 떠오른 NFT 플랫폼, 미래 경제의 화두가 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NFT 플랫폼 ‘오픈 씨(open sea)’(이하 오픈 씨)의 하루 거래액은 약 1,100억 원을 넘겼으며 우리나라의 NFT 플랫폼 ‘클리프드롭스(Klip Drops)’는 100억 원의 총 판매액을 돌파했다. 이에

NFT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더불어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형주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과 윤기영 우리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윤 교수)를 만나 NFT의 개념과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김형주
 NFT 콘텐츠협회 이사장

윤기영
 우리학교 경영학부 교수

Q1.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국민에게 NFT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NFT가 현실에서도 점차 상용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NFT의 명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김 이사장: NFT는 △계약문건을 가지고 있는 토큰△양자간 계약증표 △전자 영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다른 화폐와 섞일 수 있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요. NFT는 이것이 진화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또한 각각의 NFT는 유일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지니죠.

윤 교수: NFT는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암호화폐는 대체 토큰이지만 NFT는 각각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될 수 없는 토큰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히 말해 트위터(twitter)의 글이나 디지털 그림 등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Q1-1. NFT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 이사장: NFT는 한정적이고 독특한 것을 가짐으로써 얻는 차별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선 NFT로 파카소의 그림과 같이 현실에서 구하기 힘든 작품을 살 수 있죠.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도 NFT 대중화의 큰 계기가 됐습니다.

윤 교수: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와 메타버스가 새롭게 대두된 흐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환경△사이버 공간의 중요성 증가는 NF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모았죠. 투기적 수요 또한 NFT의 대중화를 이끌었어요. 19세기 금을 찾아 미국의 서쪽으로 이동했던 골드러시(gold rush)처럼 NFT가 돈이 된단 소문이 퍼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Q2. NFT는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NFT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이사장: NFT는 메타버스 안에서 물건을 거래하기 위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아직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이르기 때문이죠. 당분간은 NFT가 메타버스 내 교환 수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해요.

윤 교수: △상거래△엔터테인먼트△여행△원격 교육·근무·진료△제조 현장 효율화△체득 교육 등 메타버스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광범위한 메타버스의 경제 규모에서 NFT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NFT 자체의 규모가 작단 의미는 아니지만 메타버스에서 NFT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됐을 수도 있단 이야기죠.

Q2-1. 메타버스 이외에도 NFT 기술이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김 이사장: NFT의 활용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현재도 △미술 경매 시장

△부동산△스포츠 마케팅 등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번 해 1월 개봉한 영화 ‘특송’은 NFT로 영화 포스터를 발매해 소유권을 판매하기도 했죠. 이처럼 NFT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판촉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윤 교수: NFT는 △디지털 그림△디지털 소설△사진△음악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생산물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가능케 해요. 저작물이 복제되기 더 용이한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보다 저작권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Q3. 현재 우리나라 NFT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현황이 궁금합니다.

김 이사장: 현재 NFT 시장에 대한 산업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NFT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1분기 NFT 거래량이 2020년도 전체의 양과 비슷했기 때문에 1조 단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 NFT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가 발행하고 고가로 구매하는 자기거래가 성행했어요. NFT 시장을 활용한 저작권 시장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NFT의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로 쓰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시장을 통해서 NFT 시장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저작권 시장은 NFT로 인해 더욱 보호받게 되면서 커지고 있어요. 창작자들의 보호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는 다시 창작자의 참여를 늘려 앞으로 더욱 큰 시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Q4.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선 이번 달 오픈 씨의 거래량이 지난달 고점 대비 80% 급감했으며 NFT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해 11월에 비해 48% 이상 떨어졌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이 NFT 시장이 큰 낙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이사장: 이번 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NFT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선 NFT 채굴 시 많은 가스(전기 사용)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단 이유로 NFT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죠. 이와 같은 상황으로 NFT 시장은 잠시 위축될 수 있으며 시장 자체에서 콘텐츠의 거래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성을 가지기 전까진 변동 을 겪을 것입니다.

윤 교수: 지금까지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인 NFT의 거래 가격이 부풀려졌어요. 하지만 그 기대만큼 NFT의 한계효용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모나리자(Mona Lisa)’의 디지털 버전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은 그 NFT의 소유권 없이 인터넷에 복사해 저장하고 볼 수 있죠. NFT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한계 효용이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중들도 이를 점차 인식하고 있기에 이전 배불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Q4-1. 앞으로 전 세계 NFT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이사장: 현재 NFT는 △기후위기△높은 가스비△전기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장애요인이 해결되면 다방면에서 활성화 될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NFT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을 공약하는 등 NFT 실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10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 분석합니다.

Q5.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NFT 관련 법안과 규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NFT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김 이사장: 원 저작자 허락 없이 진행되는 거래나 해외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 규제가 문제로 꼽히고 있어요. 또한 NFT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해질 수 있어 규제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윤 교수: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콘텐츠가 삭제된 뒤에도 NFT는 살아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복수의 NFT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부 NFT는 발급을 위해 다량의 CO2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NFT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NFT를 이용한 저작권 보호 등의 법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Q5-1. NFT 관련 법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 이사장: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열되면 정부가 관여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단 것이죠. NFT는 정부의 전 부처가 연결된 문제일 수 있기에 범부처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원본 증명이 확실한 정부나 협회의 공식적인 인증 사업이 필요해요.

Q6. 지난해 NFT의 4분기 거래액은 119억 달러(약 14조1700억 원)를 돌파하며 NFT의 투자와 매매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NFT 투자와 매매를 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김 이사장: △가치△성장 가능성△잠재력△평판 등의 영역에서 창작자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창작자라면 그 반대로 스스로 위 영역을 자문해 보길 권장해요. 가급적이면 크기가 큰 NFT 플랫폼을 이용하길 당부합니다.

윤 교수: 오픈 씨에 등록된 NFT의 80%가 △위조△절도△SCAM(사기)입니다. 그만큼 NFT가 혼란스럽고 부풀려져 있단 것이죠. 유행에 휩쓸려 투자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엔 NFT의 구매 목적이나 쓰임새 등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블록체인(blockchain):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

**배불런 효과(Veblen effect):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

양채은 기자 03chaee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4.15(금) ~ 05.02(월)	2022.05.20(금) ~ 06.03(금)
고사장 발표	2022.05.11(수) 15:00	2022.06.15(수) 15:00
면접전형	2022.05.14(토) 10:00 예정	2022.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05.27(금) 15:00	2022.07.01(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05.30(월) ~ 06.03(금)	2022.07.04(월) ~ 07.0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험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검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터테인먼트학과(문화언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 어플이나 www.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 (자세한고사장및고사일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4.18(월) ~ 05.02(월)	2022.05.20(금) ~ 06.03(금)
고사장 발표	2022.05.11(수) 15:00	2022.06.15(수) 15:00
면접전형	2022.05.14(토) 10:00 예정	2022.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05.26(목) 15:00	2022.06.3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05.30(월) ~ 06.03(금)	2022.07.04(월) ~ 07.08(금)

*위 전형계획 및 시험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정)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정)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청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새롭게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하나 된 우리나라를 위해선

이번 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이하 윤 당선인)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현재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꾸려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당선 이후 행보에 대한 여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행보에 대한 엇갈린 반응과 추후 국민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알아보자.

윤 당선인의 행보에 대한 엇갈린 반응과 추후 국민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알아보자.

◆윤 당선인의 대선 이후 행보

이번 제20대 대선은 역대 최저 득표율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선거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 끝에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하 이 후보)보다 0.73% 앞서 당선됐다. 당선이 확정된 후 윤 당선인은 개표상황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양측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해야 한단 소감을 전한 것이다. 윤 당선인과 치열한 접전을 펼친 이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선거 직후 9일 만인 이번 달 18일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공식 출범했다. 국민통합을 국정 운영 목표로 삼은 인수위는 5월 9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 만기까지 약 50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경제△과학기술△사회복지△안보△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 및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것이다”며 “인수위 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와 민생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직전 윤 당선인과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하겠다”며 수평적 위치에서 국정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내겠다 포부를 드러냈다.

출범 후 인수위는 국정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하 김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이번 달 21일부터 인수위 모든 부처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배치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꼽으며 코로나비상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것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방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료문제 등을 다룰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역대 최저 득표율 차이로 국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 선거였기에 윤 후보의 행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발표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다”며 “새 정부를 응원하는 ‘허니문’ 기간이 없거나 짧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당선인 행보에 대한 엇갈린 반응

대통령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여가부 폐지와 청와대 이전이 가장 큰 화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업 중복의 발생△성별 논란 증폭△평등의식에 반하는 문화 형성 등을 근거로 여가부 폐지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여가부를 폐지한 후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달 13일 대선이 끝난 후 윤 당선인은 여러 반대 의견에도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대선 전후로 성별 관련 사안의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해당 공약에 대한 팽팽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4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련 여가부 전 권익증진국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서 자체를 없애는 문제엔 신중해야 한다”며 “폐지보단 부족한을 채워나가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성명을 통해 “여가부는 평범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부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발표도 상반된 여론을 형성했다. 지난 1월 27일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본인의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기존 광화문 청사 이전 공약과 달리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것이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청와대를 온전히 개방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달 24일 인수위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윤 당선인 (출처: 연합뉴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또 다른 공약으로 제시한 원활한 국민 소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화문 청사로 이전한다 약속이 대선 직후 별다른 해명 없이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면서도 불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윤 당선인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청사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또한 논란이 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면 최소 1,7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에 김 대변인은 “이전할 청사 내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건물 안에 있을 것이다”며 소통 단절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청사 이전에 대한 비용은 대략 1,200억 원이다”며 “5,000억 원, 1조 원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찬반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6%, ‘반대한다’는 응답은 53.7%를 기록해 극명히 갈린 여론 양상을 보였다. 제20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단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어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앞으로 윤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선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에 따르면 △국민화합△통합△협치가 11%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별 갈등이 심각하단 사실을 반증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극명히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동안 20대 남성과 여성을 이른바 ‘이대남’과 ‘이대녀’로 나눠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용어가 새롭게 떠올랐다. 이에 진중권 전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인이 20대를 통합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선거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대와 지역 간 투표성향 차이도 나타났다. 득표율 차이가 극명하게 난 지역은 △경북△광주△대구△전남△전북이다. 이 중 경북과 대구에선 윤 당선인이, △광주△전남△전북에선 이 후보가 각각 70% 이상 득표했다. 연령에 따른 득표 쏠림 현상도 발생했다. 특히 40대와 60대 유권자의 60% 이상이 각각 이 후보와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

이 같은 양상에 많은 정치 전문가는 우리나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선 윤 당선인의 협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 다른 색깔의 정당이 함께 정부를 구성할 때 의미를 가진다”며 “갈라진 국민을 결집하기 위해선 공동의 정책을 찾아내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갈등의 최소화가 중요하단 여론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 의석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2석, 여당인 ‘국민의힘’은 110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법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합의 가능한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의를 통해 여야 공통 공약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후 밝힌 첫 소감에서 “이번 대선의 승리는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란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 생각한다”며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와 ‘청와대 이전’을 필두로 현 정부와의 대립이 발생해 일각에선 협치 실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갈라진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윤 당선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박근혜 전직 대통령 대구 사저 입주

지난 24일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하 박 전직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했다. 박 전직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년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직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엔 지지자 등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사회 카페·음식점 등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돼

환경부는 지난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시기에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 코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당분간 힘들어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화폐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투명하게 거래해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취지다. 그러나 현재 트래블룰이 국내에서만 적용되기에 해외 거래소 등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당분간 자유로운 입출금이 어려워 해외 거래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해

이번 해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무력도발을 한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발사했다.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군사적 도발을 시도했던 북한은 이번에도 제20대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지 2주 만에 무력도발을 했다. 4년 4개월 만에 ICBM 재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촉법소년 논쟁 재점화, 어른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때

지난달 25일 넷플릭스(Netflix)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공개된 후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 역시 이런 여론을 반영해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

령 기준을 12세로 낮추겠다 공약을 내놔다. 하지만 소년범죄에 있어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단 지적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법△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대립△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법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나 보호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촉법소년 또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로 구성돼있다. 가장 약한 처분인 1호는 가해자를 집에 귀가시켜 보호자가 감호 위탁하고 2호부터 7호는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시설 위탁 등으로 이뤄진다.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에 송치돼 보호감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 채용과 입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소년심판 9화의 배경이 된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법 적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55세 여성과 29세 남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벽돌을 던진 A군은 당시 만 9세였고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에 적극 가담한 B군 역시 당시 만 11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3일에 발생한 ‘양산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14세 C 양은 밤 11시경부터 6시간 동안 손과 다리를 묶인 채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C 양을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판매해 유포했다. 당시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논란이 돼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해당 글의 서명 수는 20만 개를 돌파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신상 공개는 불가능했고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 또한 한계가 있었다.

이 두 사건 이외에도 △대전 렌터카 절도 추돌 사건△인천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등 촉법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7,665건이던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지난해 1만 2,029건으로 56%가 증가했다. 지난해 소년부에 넘겨진 1만 900명 여 가운데 약 80%는 △방화△성범죄△절도△폭력 등을 저질렀다. 이를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만 12~13세 소년은 3만 7,000여 명으로 만 10~11세의 5배이다.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

지난달 1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0대 대선 후보들 역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놔다. 이재명 제20대 대선 후보(이하 이 후보)는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발표했고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자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지적

한다. 소년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과 정도가 성인의 범죄만큼 잔인하고 교묘해지는데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알맞지 않단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아이들도 조속해지지만 소년법 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 동안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아이들이 조속하고 범죄도 흉포해지는 경향을 보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최근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단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악용한 사례도 발생한다. 그 예로 지난해 12월 10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인 모텔에서 음주 농동을 부린 사건이 있다. 무인 모텔을 운영하는 D 씨는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의 교체 비용이 도합 42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촉법소년임을 알리며 소리치기도 했다. 만 13세 범죄율이 유독 높은 점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의 근거로 삼는다. 공



▲그것이 알고싶다 1259회 ‘소년심판, 두 번의 죄와 벌’(출처: SBS)

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다”며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 방향에 어긋나고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단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개정문은 소년사법 체계가 소년법의 교화와 선도에 중점을 뒀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이하 천 판사)는 “어른들은 소년법으로 청소년을 지켜야 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추지 말 것과 중범죄를 예외로 뒀 낮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단 점이다. 한영선 전 서울소년원장(이하 한 원장)은 형사처벌론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막아낼 수 없다며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장은 “소년법원에 회복적 솔루션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가해자도 소년원에서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판사 또한 소년법 사건 피해자의 상처는 가해자 처벌로만 치유되지 않고 가해자의 진정 어린 사과가 있을 때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소년법 교화 시설과 보호 관찰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표했다. 정복연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아이들이 제3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보호 시설을 비행 및 범죄 수준을 고려해 나눠야 한단 입장을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교도소는 김천소년교도소 한 곳뿐이고 소년원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등 10곳에 불과하다. 일본이 △소년 교도소 7개△소년원 52개△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18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년법 교화 시설의 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호나 5호의 보호 처분을 받으면 보호 관찰관이 소년법을 집중 관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년 보호 관찰관 1명당 담당하는 소년법들의 수가 47.3명으로 업무 부담이 많은 편이다. 이런 시설 과밀화로 인해 소년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다시 범죄를 학습하고 재범률은 증가한다. 천 판사는 “형사처벌이 늘면 소년 교도소는 과밀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도소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고 인권침해와 교정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년법원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에 가정법원은 별도로 소년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소년법원을 신설해야 한단 주장도 있다. △독일△미국△영국 등의 나라이선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법원이 모든 소년 범죄에 대해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천 판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일본처럼 판사가 주도적으로 기소 여부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소년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없단 점도 문제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범죄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공식 통계가 부재해 소년법 개정이나 소년보호시설 확충이 쉽사리 이뤄지지 못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소년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고 촉법소년에 관한 경찰청 내부 자체 자료는 우범소년을 포함한 수치여서 부정확하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년법 개정이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촉법소년 범죄 유형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키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촉법소년 통계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 통계 항목이 키스에 신설된다면 촉법소년 범죄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각종 정책 마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촉법소년이 다시 화두에 오른 만큼 피해자와 소년법을 모두 고려한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나를 위한
시간

예전부터 난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 항상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주체적이지 못한 내 모습을 자책했다. 차마 내치지 못한 다른 이들의 부탁이 내겐 압박으로 돌아왔고 어느새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트렸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고민과 함께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정작 내겐 그렇지 못한단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보듬는 방법을 몰랐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단 욕심으로 나를 채찍질했다. 이런 내게 필요한 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한창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친구에게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작가는 남을 신경 쓰지 말란 뻔한 말 대신 무엇보다도 나를 이해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가의 말에 오랜 고민이 해소된 것만 같은 후련한 기분이었다. 책을 읽으며 요즘 세상이 개인 중심적이라고들 하지만 어쩌면 그 속에서 가장 외면받고 소외된 건 우리 스스로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방법만 배웠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다.

학보사에 들어온 후 반복된 퇴고의 과정에서 나에 대한 답답함은 커져만 갔다. 좋아하던 글쓰기가 막막해진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특히 학보사 생활 초반엔 기성 언론의 시선에 따라 헤드라인 기사에 오르거나 논란이 된 주제를 선택 하는데만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글에 대한 고민보다 논란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글 쓰는 게 좋아 시작했지만 정작 내 시선을 담아내는 글을 쓰는 데 소극적이었다. 몇 번의 마감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주체적으로 글감을 고르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분명해졌다. 기사를 쓰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난 아직 미숙하지만 내가 쓴 글에 대해 고민하는 외대학보에서의 시간이 좋다. 타인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신기한 경험을 사랑하게 됐다.

학보사 면접 당시 기자를 꿈꾸지 않는 내가 학보사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학보사에도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단 말과 함께 대답을 얼버무렸던 기억이 난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진 시선에 대해 스스로가 인정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외대학보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오긴커녕 아등바등 마감에 쫓기고 있지만 정기자로서 생활하며 그동안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내게 외대학보는 그 시작이자 발돋움의 된 소중한 경험이다.



한 비 기자

[책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을 읽고]
초콜릿의 씹쓸함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매해 벨런타인데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특별한 날이 오면 응원과 사랑의 표시로 초콜릿을 주고받는다. 우물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전환된다. 그것은 초콜릿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이다. 그러나 초콜릿은 ‘어린이의 눈물’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초콜릿 생산 과정의 이면엔 노동을 착취당한 어린이가 있기 때문이다.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른단 제목처럼 이 책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농장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동 착취 현장을 17세 소년 ‘아마두’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아마두와 그의 동생 ‘세이두’는 돈을 벌기 위해 적도 근처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이곳에서 형제는 한 끼 음식으로 하루의 허기를 채우며 자신에게 정해진 노동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일한다. 농장의 유일한 여성인 ‘하디자’는 어린이 노동 착취 현장을 취재하는 어머니 때문에 협박을 받고 납치돼 이곳으로 오게 된다. 아이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보호복도 주어지지 않는 위험한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어느 날 세이두가 작업 도중 팔에 칼을 맞아 부상을 입게 된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치료해주지 않고 그의 팔을 잘라버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이두·아마두·하디자는 카카오 농장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몰래 배달 트럭에 숨어 탈출을 감행한다. 하디자의 엄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협박과 납치로 포기했던 어린이 노동 착취 기사를 다시 작성해 문제를 공론화한다. 이를 통해 아마두와 세이두는 공정 무역을 하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게 되며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된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침묵의 시선’을 보고]
군중은 침묵하지 않았다

영화 ‘침묵의 시선’은 인도네시아의 현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군인 장교 ‘하지 모하마드 수하르토’ (이하 수하르토)가 공산당의 쿠데타를 진압한 후 인도네시아의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100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1965년 주인공 ‘아디’의 형 ‘탐리’는 군사 조직에게 고문을 당해 잔인하게 살해됐다. 형이 죽은 지 40년이 되던 날 아디는 형의 죽음에 일조했던 이들을 찾아가 형과 관련된 과거의 학살에 관해 묻는다. 그는 열 명이 넘는 가해자를 만났지만 누구도 먼저 사과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중 몇몇은 과거가 자랑스럽단 듯 갈로 희생자를 죽이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한다.

영화의 감독 ‘조슈아 오펜하이머’ (이하 조슈아 감독)는 몇년간 인도네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군부의 학살에 대해 증언할 피해자를 찾았지만 선뜻 나서는 이를 찾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당시 다수의 학살 가해자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권력층에 분포해있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여전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도 아디는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화에 출연한다. 탐리를 죽인 군인을 비롯한 모든 가해자는 폭력을 정당화하며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단 변명을 늘어놓는다.

당시 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으로 대표된 민주주의

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다툼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도 깊이 뿌리내렸다. 영화 속 군사 장교는 과거 학살에 대해 “민주주의만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바였기에 공산당을 모조리 죽여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역시 해당 사건이 인도네시아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을 암시한다.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인도네시아 군사조직이 강력한 무력을 통해 시민을 제압하는 모습은 1970년대의 우리나라를 상기시킨다. 두 역사의 공통점은 이쁜만이 아니다. 억압받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 변화를 이뤄냈단 사실 또한 유사하다.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 국민은 △계엄령 철폐△민주 정부 수립△신군부 세력의 독재 퇴진을 외치며 광주를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1998년 5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선 수하르토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5월 18일에 일어난 두 시위는 민주화 개혁의 시작점이 됐다. 1987년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뤄졌으며 1998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는 대통령직을 내려놔다. 국민의 행동이 권력의 횡포를 막은 것이다. 침묵을 깨고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군중이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1065호 학보를 읽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

현대사회는 정보 범람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린 수많은 정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검색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사실이 혼재된 정보의 높이 우리 시대의 이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갖춰야 할 저널리즘의 모습은 더욱 중요하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진실을 기반으로 문제에 대해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 외대학보가 이런 역할에 충실했는지 살펴봤다.

3면에서 다뤄진 중고거래에 관한 기사는 우리학교 학생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아내는 모습에서 학내언론이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장구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설문조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중고거래 관련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이용자 실명인증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지만 정작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니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4면에선 박정운 총장의 취임 후 학제 개편의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학제 개편이 이행되면 학생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에 해당 주제를 다룬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신설했으나 실효성 있는 학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건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다만 학제 개편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반응을 다루는 부분에서 학생의 의견만이 다뤄져 아쉬웠다. 개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면 더 흥미로운 기사가 됐을 것이다.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의 역할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대중이 언론에게 바라는 분명한 역할이 있기에 언론은 대체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집요한 문제 제기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 끝에 달성되는 공익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 목표는 비단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학내 언론 또한 동일하게 추구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내 언론에선 문제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설 기회가 많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박원주(사범·한국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65호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이번 달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별개로 추운 겨울 날씨가 조금씩 풀려 봄의 기운이 완연하다. 이에 그간 조용하던 우리학교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활기찬 모습이 계속되길 바란다.

1065호에선 단연 4면의 학제 개편 관련 기사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사회 회의에서 △유사중복학과 통합△전략언어융합대학 재편△AI융합대학 신설 등이 언급됐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학제 개편에 대한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과 우리학교 학생 간의 입장 차이였다. 이전까지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지만 4면 기사를 접한 뒤 학제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느꼈다. 학제 개편을 통해 중복학과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5면에 위치한 편입생에 관한 기사 또한 흥미로웠다. 본 기사엔 전체적인 편입생 수의 증가와 함께 편입생이 겪는 차별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편입생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재학생과의 정보 격차다. 편입생은 △교원학생제도△전공 관련 정보△7+1 파견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재학생에 비해 활발하게

전달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편입생은 교학번으로 분류돼 동아리와 학생회 구성원 모집에 배제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편입생은 엄연히 우리학교 학생이다. 아주대 학교의 편입생 처우 사례를 본받아 우리학교 또한 편입생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길 바란다.

7면의 기사는 청년지원정책에 관해 다뤘다. 본 기사는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소개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과 높은 우대금리를 가졌지만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관해 우리학교 학생이 제시한 의견이 흥미로웠다. 청년 정책 대상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야 한단 의견이었다. 나 또한 우리학교 학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청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청년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65호를 읽으며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 기존의 틀을 재정의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 창구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국제지역·한국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빈의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며

국·부장 고정칼럼

새 학기가 시작된 우리학교 학생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면 수업에 적응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여전히 극성 있지만 위드 코로나(With Corona) 기조에 맞춰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있다.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난해 12월 선출된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과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23일 외대학보는 박 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융합대학 확대와 유사중복학과 통합과 같은 학사제도 개편과 혁신이 꼭 필요한단 박 총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융합대학 확대와 유사중복학과 통합은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학과가 없어지거나 통합될 수 있던 우리학교 학생들의 불안 역시 명백히 존재한다. 입학할 당시 우리학교 해당 학과에 대한 애정과 굳은 확신으로 내린 결정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허무한 결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융합대학 확대와 유사중복학과 통합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선 안 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9일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됐다. 지난 정권과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우리나라를 위해 힘쓸 것이란 기대 속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양극화된 대선 결과가 보여주듯 윤 당선인의 행보 하나 하나에 국민의 여론이 반으로 갈라선 모양새를 보인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사항이 대표

적이다. 이에 관해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이 국민과 한 약속이니만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공약의 적절성은 차치해두고서라도 국민의 절반만 동의하고 있는 사항을 국민 전체와의 약속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 의문이다. 정치적 여론이 양극화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이러한 의지는 자칫 국민 간 정서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단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껏 겪지 못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남성과 여성△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여당과 야당 등을 기준으로 나뉘어 서로를 혐오하고 배제한다.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남성과 여성△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수시와 정시△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서로를 혐오하는 의견으로 가득 찬 ‘투기장’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융합대학 확대와 유사중복학과 폐지에 관해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 학제 개편은 불가피하단 입장과 구조조정 예상 학과 학생들 간의 대립이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쪽의 의견만 반영해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공론장 속에서 배제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박 총장과 윤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봉비 편집장 02jbb@hufs.ac.kr



기자들이 찍은 우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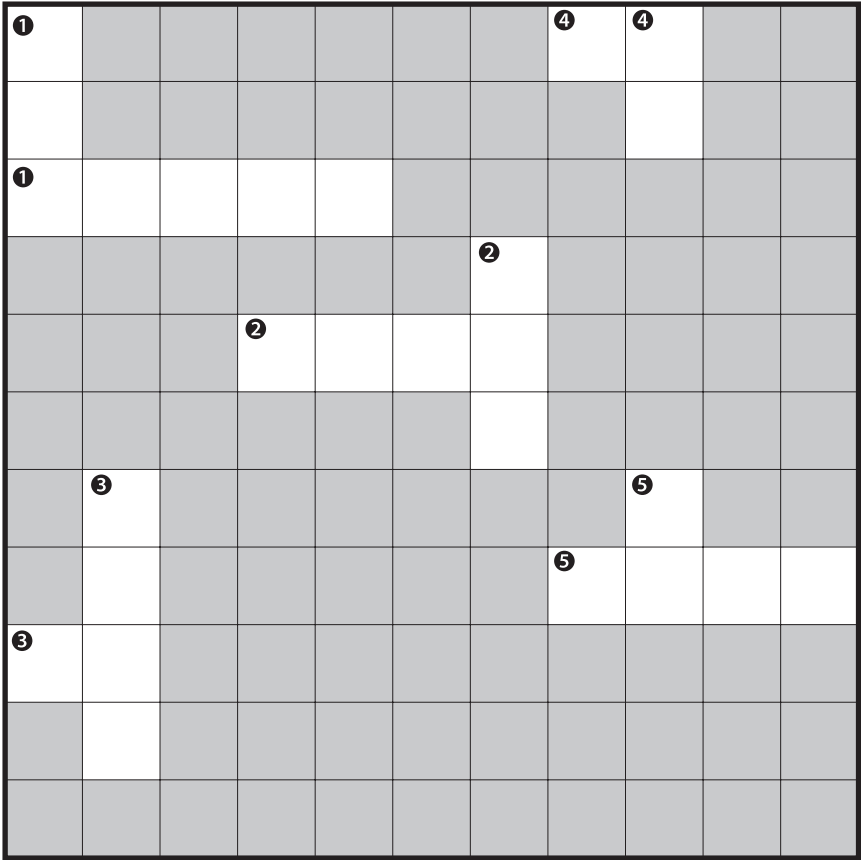


이 사진은 지난해 봄에 찍은 사진으로 후생관에서 백년관으로 가는 길을 촬영했습니다. 2020년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즐기지 못했던 학교의 봄을 처음으로 즐긴 날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해엔 독자 여러분도 동기들과 함께 학교의 봄을 만끽하며 즐거운 기억을 만들기 바랍니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 2021년 4월의 글로벌캠퍼스

십자말풀이



가로

1. 지난 21일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는 이란의 새해 축제인 ‘노루즈(Nowruz)’를 맞아 주한 이란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2회 ○○○○’를 개최했다.(1면 참조)
2. 우리학교의 ○○○○ 및 산학협력 인턴십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 있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다.(1면 참조)
3. 이번 사업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다국어 음성 데이터 교육과 자연어 분석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외국어 ○○평가 표준체계 수립△음성인식 및 통·번역 모델 설계△자동 문법교정 시스템 확장 등을 실행할 것이다.(2면 참조)
4. 이번 선거를 계기로 3주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학교 ○○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합니다.(4면 참조)
5.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 역시 이번 여론을 반영해 만 14세인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놔다.(9면 참조)

세로

1. 이번 1학기 ○○○취업 특강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2면 참조)
2. 이를 통해 교육부는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면수업을 적극 확대하되 비대면수업 시에도 양질의 수업으로 학생의 ○○○을 보호해야 한단 입장을 전했다.(5면 참조)
3. ○○○○는 다른 화폐와 섞일 수 있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요.(7면 참조)
4.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입학 전 ○○○연어(이하 전공어)를 배운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성적평가가 불공정하단 목소리가 제기돼왔다.(3면 참조)
5. 이에 국회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8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원인에 대한 논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초 러시아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시민들의 저항은 완강했고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는 인도적 지원은 물론 대전차 무기 등 군사 장비를 지원했다. 많은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했다.

전쟁 발발 이후 약 35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으로 대피했다. 고국에 남은 사람 중에도 650만 명은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대되면서 민간인의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고, 일부 도시들은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은 △보급 부족△사기 저하△제공권 장악 실패△추위 등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이 전쟁의 직접적인 책임은 현 러시아 지도부에 있다. 첫째 러시아의 침공행위는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에 대해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UN) 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위반이다. 둘째 러시아의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전시 국제법 상의 ‘분별의 원칙’을 위배한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언급됐다. 이는 언급만으로도 모든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원인과 결과에 상관없이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일까.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푸틴 지도부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실시했다. 국제 여론도 러시아의 침공 행위를 통렬히 비판한다. 비판의 초점은 이번 침공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의도에 맞춰져 있다. 침공의 명분으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설득력이 없다. 푸틴 대통령의 의도는 구소련시절에 버금가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 또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향력을 외교가 아닌 군사행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는 유럽연합(EU)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반면에 현실주의적 시각에선 이번 전쟁의 원인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나토) 동맹국의 단일한 안보정책에서 찾는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안보 인식을 서방이 인식하지 못했고 위협을 느꼈을 경우 러시아가 취할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령 시카고 대학의 미어사이머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추진해온 △나토의 확장△민주주의 확산 정책△유럽연합의 동진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본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 지도층은 나토의 회원국 확대에 반대했다. 2008년의 조지아 전쟁과 2014년의 크림반도 합병은 이러한 러시아의 반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이 입장은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서 미국과 동맹국의 미숙한 처신을 지적한다. 처음부터 미국은 나토가 확장되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긋고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 지대로써의 동유럽 국가들을 설정해 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 의지와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쉽게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적 타협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우발적 확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한국의 외교 안보와 경제정책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미국·동맹국 대 중국·러시아로 양분되는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좋은 싫든 국제규범과 협의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다자주의의 원칙이 깨지는 선례를 남겼다. 다자주의가 약화되면 진영 중심의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양자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기회 속에 성장한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갖고 올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시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2jbb@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정봉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펜으로 사회를 바꾸는 진실된 언론인 김성규 경인일보 편집국장을 만나다

김성규(정책과학·신문방송학 87) 경인일보 편집국장은 경인일보에 입사한 후 28년간 지역사회의 든든한 징검다리로서 경인 지역 독자들을 위해 힘써왔다. 제41대 인천경기기자협회 협회장을 지낸 그는 경인일보에서 △경제부장△사회부장△AD마케팅국장△정치부장 자리를 거쳐 이번 해 1월 경인일보 편집국장의 자리에 올랐다. 평기자에서부터 편집국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김성규 편집국장이 걸은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Q1.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중등 영어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 때 언론계에 진출한 선배들이 학교에 방문해 멘토링 및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기자만큼 직접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후로 언론인의 길을 걷기로 한 마음은 변치 않았죠.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학내 언론에 관심이 많던 학생이었어요. 또한 방송기자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FBS에 지원해 군 입대 전까지 2년간 기자로 활동했어요. 등교할 때 들던 아침 라디오 진행에 신선함을 느껴 직접 취재한 자료를 담은 방송을 만들고 싶었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후반은 민주화 향방이 활발했던 시절로 교내에서 많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내 기자로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 많아 이때부터 현직 기자의 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어요.

Q3. 기자 시험을 준비하던 과정은 어땠나요?

각 언론사의 출제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 공부했지만 기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언론인을 꿈꾸는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했죠. △1차 필기시험△2차 논문 기사 작성△3차 면접을 대비하고 영어공인인증시험 대신 언론사 자체 영어 필기시험도 준비해야 하다 보니 기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당시 언론사에선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옥편을 암기할 정도로 한자어 공부에 치중해야 했어요.

Q4. 경인일보 입사 후 △경제부장△사회부장△AD마케팅국장△정치부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경제부에 있을 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동창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해 상당히 난처했죠. 취재를 시작하자 회사 내부에서 선제적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테니 기사를 실지 말아 달란 부탁을 받았어요. 이때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자는 사적인 감정의 개입 없이 중립적인 자세에서 문제를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동기가 제 입장을 헤아려줘 난처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Q4-1. 본인이 썼던 기사 중 가장 뿌듯했던

기사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담은 기사에 가장 애정이 가요. 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수탈 당시와 관련된 지적이 일부 왜곡됐던 사실을 발견하는 등 우리나라 토지 관련 법안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낙후된 지적제도와 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대안을 마련해 결국 해당 내용이 도로명 사업 개정에 반영될 수 있었어요. 언론인으로서 주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던 사실이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2007년 이달의 기사상과 한국 기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죠.

Q4-2. 기자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원에게 끊임없이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성가신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죠. 또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취재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도 존재해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기자는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연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중견 기자가 됐다고 해서 취재 과정이 편하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이처럼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어려움을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Q5.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언론에 발을 담고 있는 저조차도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기자가 쓴 기사를 멋대로 인용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일도 부지기수죠.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YouTube)로 인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입니다.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편중된 소재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극적인 요소를 담은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아 가짜뉴스도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수요를 끊는 건전한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이번 해 1월 경인일보 편집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경인일보의 새로운 편집국장으로 진행 중인 일엔 무엇이 있나요?

편집장이 된 후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스트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영상팀을 별

도로 두고 유튜브(YouTube)를 활용해 종이신문 독자와 디지털 플랫폼 시청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타 언론사와의 속보성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미디어 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뉴스 전송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Q7. 마지막으로 기사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재학생만이 아닌 다양한 학과의 학생이 기자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언론사는 언론계열 학과뿐만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철학과△이공계열 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졸업생으로 구성됩니다. 전문 영역을 공부한 재원이 입사하면 더욱 심도 있는 취재가 이뤄져 풍부한 기사가 완성될 수 있

죠. 언론사는 특정 분야에 제한된 영역이 아니기에 열린 마음과 부지런한 자세로 임한다면 본인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Lifetime Value Creator

www.lotte.co.kr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모델 분들의 손동작은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의 수어표현입니다. 더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롯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 바로가기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